

바라던



웹진 <해안선> 접속 링크

바다



해안선

해안선

KOMSA MAGAZINE

우리가 바라던 바다에서
언제나 찬란한 봄날이기를



2023 Spring
-
Vol.53



오늘부터 내꿈은 안전이야



2023 Spring
KOMSA MAGAZINE

Vol.53

발행인
김준석 이사장

발행일
2023년 4월 28일(통권 53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CONTENTS

☞ 웃음바다

- 4 바다의 계절
- 6 海세이
영국의 브라이튼 해변에서
마라토너를 만나다
- 8 어촌갈지도
인천 자월도&자월리 어촌계
- 16 바다 옆 예술관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
김현주 작가
- 20 바다 지킴이
해피해빗(happyhabit)
- 22 여기가 뜨는 이유
젬스톤 거제점
- 24 즐기는 라디오
바다에서 날아온
아름다운 이야기

☞ 안전바다

- 26 우리는 KOMSA
- 28 베테랑을 만나다
사천지사 선박검사원 김승현 부장
- 32 해수호 토크
MTIS&PATIS
- 36 KOMSA 리포트
About:선박검사원
- 38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통영에 꼭 한 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 44 함께 그린 바다
유원마린테크
- 46 안전 가이드
바다낚시 안전하게 즐기기
- 48 뉴스
- 49 네트워크
- 50 이벤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SNS와 함께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고객의 행복을 지켜나갑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내용 일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활기가 됩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꽁꽁 묶어두었던 어부의 뱃머리는
다시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 한가운데로 향합니다.

봄별을 머금고 잔잔히 빛나는 바다는
어쩌면, 이 계절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기다렸을 봄의 바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같은 기억으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의
봄 바다는

더없이
따뜻했고

더없이
풍요로웠노라고.





영국의 브라이튼 해변에서 마라토너를 만나다

글 정여울 작가

나는 겨울과 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사랑한다. 겨울의 추위가 지겨워질 때쯤, 이제 제발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일교차가 커지며 대낮의 햇살이 살금살금 따스해지고, 낮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며, 그러다가도 날씨가 돌변하며 꽃샘추위가 찾아들기도 하는 그런 시절. 아직은 차가운 밤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도, 꽃망울을 터뜨린 목련을 바라보며 마침내 올 '봄의 승리'를 예감하는 즈음. 이런 시절에는 봄의 기미를 예감하는 모든 자잘한 징후들에 쫓긋 귀를 기울이게 된다. 지역별로 벚꽃 개화시기를 알아보며 어디로 꽃 구경을 갈까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빠서 결국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바쁘게 일터로 향하다가 가로수에 갑작스레 핀 벚꽃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봄이로구나'하며 애 투해하는, 그런 시기.

나는 그런 아름답고도 혹독한 시기를 영국에서 보낸 적이 있다. 아름다움은 봄을 향한 설렘 때문이고, 혹독함은 따스한 봄햇살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영국의 가혹한 날씨 때문이었다. 나는 취재 때문에 런던에 갔다가 하루 시간을 내어 런던에서 비교적 가까운 해변 도시 브라이튼으로 갔다. 브라이튼으로 가면 좀 더 따스한 봄햇살을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날씨를 열심히 검색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날, 비가 오지 않는 날로 점찍어 보았지만, 일기예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오전에 도착했을 때는 여전히 흐린 날씨였다. 낙담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보기는 글렀구나. 그런데 거리를 걷다가 도로를 봉쇄하는 것이 보였다.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에 차단막을 쳐놓은 것이 보였다.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그날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이 열리는 날이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달리고 있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패딩코트를 입고 있는데, 뛰는 사람들은 반바지에 러닝 차림이었다.

문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듯했다. 브라이튼 해안도로를 향해 있는 힘껏 달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였다. 인간의 달리는 몸이 그토록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남녀노소 누구나, 뺄뺄 마른 몸이든 건장한 몸이든 상관없이, 다만 그들이 바닷가를 향해 끝없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같이 다 찬란하고 눈부시게 다가왔다.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의 묘미는 '달리기의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달린다는 사실' 그 자체였던 것이다. '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다'는 생각에 빠져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비로소 햇살이 따스해진 것이 느껴졌다.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진을 열심히 찍다 보니 하늘을 못 봤던 것이다. 하늘은 푸르르게 빛나고 있었다. 구름은 어느새 말끔하게 걷히고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이 푸른 바다와 함께 반짝이고 있었다. 응원하는 사람들은 오전에는 두꺼운 코트에 털모자까지 쓰고 있었지만 어느새 그들도 마라톤러처럼 하나둘씩 두꺼운 옷을 벗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해지고, 하늘은 높고 푸르러지고, 마라톤의 열기와 응원의 열기가 합쳐져 어느새 거리는 후끈 달아올랐다. 봄 바다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었다. 아침에는 겨울바람이 불더라도, 오후에는 어느덧 몰라보게 따스해진 봄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것. 어제까지의 칙칙하고 우울하던 런던의 날씨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내 마음은 어느덧 따사로운 봄바람으로 가득 차올랐다. 언젠가는 나도 이 부족한 체력을 잘 길러서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을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운데, 뛰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일까. 무려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그날 브라이튼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고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미루기만 해왔을까. 나는 봄빛이 쏟아지는 브라이튼 해변 위로 날아오르는 새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다. 나도 너희들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면, 봄바람처럼, 봄 바다의 햇살처럼, 봄 바다의 파도처럼, 그렇게 가득한 설렘의 기운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글이 당신에게 따스한 봄바람이 될 수 있기를. 어제까지는 힘든 일로 가득한 '혹한기'였던 우리 마음이, 봄 바다의 따스한 기운처럼 밝아지고 환해지고 너그러워지기를. 🌞





늦게
찾아온 봄,
그래서
더 좋은

자
월
도

봄이 끝나버린 줄만 알았다.
화려하게 피고 빠르게 저버린 벚꽃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유난히 따뜻했던 햇살, 맑은 하늘, 훑날리는 꽃잎, 기분 좋은 향기...
아직도 이렇게 봄의 잔상들로 가득한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 끝자락이라도 잡아보고자, 가장 늦게 봄이 온다는 인천의 자월도를 찾았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도시와 가까운 섬, 자월도

인천에는 섬이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월도는 그 많은 인천의 섬 중 하나다.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면 1시간 30분 남짓 소요되는 부담 없는 거리라 여행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면 유독 자월도를 찾는 섬 여행객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자월도가 '벚꽃이 가장 늦게 피는 섬'이기도 해서다. 그뿐인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4월, '이달의 가고 싶은 섬'이라 호기심이 절로 생긴다.

자월도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이나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서 출발지를 선택하면 된다.

바람도, 온도도 모든 게 좋았던 날씨를 만끽하며 첫 배를 타기 위해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로 향했다. 하지만, 바다의 날씨는 육지와 달랐다 보다. 안개가 낀 탓에 대기를 해야 했고, 계획했던 차를 선착할 수도 없었다. 차를 선착할 수 있는 배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대기해야 하는데 이미 차를 선착하기 위한 대기 줄이 길었기 때문이다.

정신없는 상황이 정리되고 '무사히 배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통했던 걸까. 다행히 안개로 인한 탑승 대기가 해제되어 자월도행 배는 무사히 출항을 알렸다.

혹시 자월도나 다른 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수를 미리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를 바란다. 바다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니까.

걸으며 누리는 자월도의 봄

첫 배를 탄 덕분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 배 안에서 바다를 마음껏 보는 사이, 자월도 도착을 알리는 선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루할 줄만 알았던 배에서의 시간이 찰나라고 느껴진 건, 섬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으리라.

마치 큰 보름달을 연상케 하는 원형의 조형물에 쓰인 '자월도'라는 문구를 보니, 도착한 게 실감이 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자월도라는 이름은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아마도 선착장의 조형물 역시 보름달을 형상화한 게 아닐까 싶다.

차를 가지고 이동해야겠다는 계획이 실패했던 터라 선착장에서 내려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다. 안개가 자욱이 끼고, 바람이 살짝 추웠지만 걷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실제로 자월도는 바람이 매섭지도 않고, 해안도로가 잘 나 있어 서인지 자월도선착장-하늬곶해변-국사봉-장골해변으로 구성된 트레킹 코스가 유명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봄이면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나 캠핑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십여 분을 걸어 장골해변에 다다르니 삼삼오오 모여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조용한 캠핑이 취향인 사람들이라면, 자월도 장골해변을 추천한다. 조용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 가기에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면 유독 자월도를 찾는 섬 여행객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자월도가 '벚꽃이 가장 늦게 피는 섬'이기도 해서다.



자월도와 함께한 하루

캠핑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유로움이 좋아서 백사장에 있는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국사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국사봉은 자월도 중앙에 있는 산이다. 높이 166m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 마을 주민들도, 여행객들도 자주 들르는 곳 중의 하나다.

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찾는 이유도 있지만, 봄에 국사봉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 때문이다. 바로 4km에 달하는 벚꽃길. 자월도는 우리나라에서 벚꽃 개화시기가 가장 늦은 지역이어서 4월 중순에 찾아도 벚꽃을 마음껏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사봉 초입까지 가는 길목에 피어난 벚꽃은 여행객들의 발을 절로 멈추게 한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이 마을과 어우러진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 계속 있을 수 없는 탓에 환상적인 벚꽃길을 눈에 담은 걸로 만족하고 국사봉을 올랐다. 비단 국사봉뿐만 아니라도 자월도 곳곳에서 복수초, 이름 모를 들꽃 등의 봄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중 하나가 구름다리로 이어진 목섬이다. 계절별로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며 꽃동산과 탁 트인 바다 전경이 그림 같은 자월도의 명소다. 국사봉 산길을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국사봉에서 내려와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방법도 있다. 여행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걷는 여행이 되어버렸지만, 오히려 좋았던 자월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루가 흘러갈지라도 전혀 문제 없다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된다는 가르침을 준 곳이다.



비단 국사봉뿐만 아니라도 자월도 곳곳에서 복수초, 이름 모를 들꽃 등의 봄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중 하나가 구름다리로 이어진 목섬이다. 계절별로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며 꽃동산과 탁 트인 바다 전경이 그림 같은 자월도의 명소다.



자월도에서 꼭 해봐요

자전거 타기

장골해변에 있는 슈퍼에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 한 시간에 5,000원. 해안도로를 달려 자월3리까지 가면 국사봉 벚꽃길 못지않은 벚꽃터널을 만날 수 있다.

한적한 캠핑

정식 캠핑장은 아직 없다. 하지만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인지 기본 장비를 챙겨서 캠핑을 즐기다가는 사람들이 많다. 단, 머물고 간 자리까지 깨끗하게 치우고 가는 매너를 갖출 것.

소박하지만, 강단 있게 자월리 어촌계

자월리는 총 3리로 이루어져 있다. 웅진군 내에서는 조그마한 섬에 속하지만, 그 안에서 삶을 일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작지만 그들만의 소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월리 어촌계를 들여다본다.

자월리 어촌계의 미래를 책임진다

자월리 어촌계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곳이다. 총 인원은 약 100여 명. 웅진군 내에서는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2년 전 자월리 어촌계 최초의 여성 어촌계장, 김은영 계장이 선출되면서 '작지만 강한 어촌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어촌계장이 된 후 다른 지역의 어촌계 견학을 많이 다녀본 결과, 그간 자월리 어촌계가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계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바지락 캐기 체험학습장을 떠올렸다고.

"자월리는 마이너스 사리 때 여러 해산물을 많이 채취할 수 있어요. 굴, 바지락, 전복 등 다양하죠. 이렇게 황금어장에서 채취한 해산물들을 상회로 넘겨 개인 판매를 하거나 소득 사업을 합니다. 특히 바지락이 많이 나서 여행객들이 오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려고 해요." 현재는 계원들의 동의를 얻고, 지자체에 수락을 받은 상태. 바지락 체험장이 생기면 어촌계도 활성화되고, 자월도를 찾는 여행객들도 색다른 재미를 얻고 갈 수 있어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계장을 믿고 지지하는 계원들, 계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계장. 이 환상의 조합이라면, 자월리 어촌계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게 빛날 것이다.



어촌계 사람들



자월리 어촌계
김은영 계장

자기소개해 주세요.

자월리 어촌계를 이끌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자월도는 남편의 고향이에요. 남편을 따라 자월도에 온지 어느덧 8년이 되었네요. 부족한 저에게 어촌계장이라는 임무를 주셨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촌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않고 달려갈게요.

자월도를 자랑해 주세요.

조용해서 살기가 좋습니다. 국사봉, 목섬, 장골해변 등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 볼수록 매력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싱싱한 제철 해산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월도의 특색을 살려 어촌계를 이끌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월도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월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월도에서만 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자월도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것은 멈춰주세요. 저희 어민들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체험할 수 있도록 조만간 체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니, 부디 무분별한 채취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자월리 어촌계
김연애 계원

자기소개해 주세요.

자월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토박이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자월도는 참 살기가 좋아졌어요. 어촌계의 한 사람으로서, 자월도가 더욱 살기 좋아지길 바랍니다.

자월도를 자랑해 주세요.

자월도에서 나고 자란 물건들만 팔아요.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죠. 굴, 바지락, 동굴레는 자월도에서 유명합니다. 하지만 어촌계장님 말처럼 이 소중한 자월도의 먹거리들을 무분별하게 채취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월도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월도의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월도는 육지하고도 가까워서 여행하기 좋은 섬이기도 하지만, 어민들의 터전이거든요. 이 점을 고려해 주신다면, 자월도는 더 아름다운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어촌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볼거리 풍성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



▲ <원더랜드 인 시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따온 제목으로, 시니가 동네를 탐험하는 콘셉트다.

만화 × 디자인 : 그리고 만드는 작업실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

김현주 작가

녹슨 철제 때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다.
동네 꼬마 아이들의 뽀뽀뽀뽀한 낙서와 평상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어른들의 모습도 보기 어렵다.
정겨운 슈퍼가 사라지고 편의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요즘.
도시는 점점 정돈되고 있지만, 어쩐지 서운하고 서글프다.
김현주 작가는 잊혀가는 동네의 풍경을,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싶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글 박영화 / 사진 고인순



뽀뽀하시니? 모모하시니!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매끄러운 콘크리트 건물 대신 다닥다닥 붙은 주택들이 눈에 들어온다. 오가는 사람도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대부분이다. 예술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구도심의 풍경. 이곳이 맞나 의심하던 그때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보였다. “모모하시니가 무슨 뜻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김현주 작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질문부터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근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어느 한 가지로 규정짓기 어려워져 ‘뽀뽀 할까?’, ‘뽀뽀하는 곳이야’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모모하시니’라고 지었거든요.”

그림을 기반으로 일러스트, 만화, 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하기에 ‘만물작업’이라는 이름도 붙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모하시니 만물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현주 작가와 남편인 만화가 오현석 작가 부부가 운영하는 소소한 동네 예술 가게인 셈이다.

열 번의 만남, 일곱 편의 <미찰>

2020년 미추홀구 곳곳에서 <미찰>을 볼 수 있었다. <미찰>은 미추홀구의 줄임말로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김현주 작가를 비롯해 동네 주민 8명이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록한 동네 이야기다.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며 미추홀구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아 퍼냈는데, 신문처럼 접을 수도 있고 포스터처럼 벽에 붙여놓고 볼 수도 있게 제작했다.



동네의 오랜 벽들, 미추홀 노포, 이 시절 동네 사람들, 동네 산책, 수봉공원 등을 주제로 다뤘었다. 이를테면 촌스럽지만 정겹고 순박한 집과, 거창하진 않지만 역사를 겹겹이 쌓아 올린 혹은 지금도 쌓아가는 중인 미추홀구의 작은 노포를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기록한 것이다.

“<미찰>은 애정이 담긴 동네 창작 기록물입니다. 주민들과 열 번 정도 만나서 일곱 편의 동네 이야기를 만들었죠. 2020년 겨울에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발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의 활동을 계기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동네 이웃들과 함께 예술 작업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보통 사람들과 보통의 날들

부부의 작업 공간 옆에는 레고로 가득한 책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부부의 아들인 ‘하신’이의 공간이다. 그리고 보니 하신이의 작품들이 작업실 곳곳에 걸려있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했기에 작업실도 가게 딸린 집으로 찾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작업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신이도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신이도 자신을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도요. 단순히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일원으로서 당연히 함께하고 있어요.”

김현주 작가의 작업은 하신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는 개인의 생각과 작업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하신이를 중심으로 한 세계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 아이의 세계, 판타지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하신이가 동네를 탐험하는 모습을 판타지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수봉공원 중턱에 있는 오래된 이발관이나 동네 가게들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거죠.”

김현주 작가는 보통 사람들과 보통의 날들을 주제로 삼은 일상만화도 연재 중이다. 주로 육아 이야기인데, 100편씩 날본 후 내년 하반기에 365편의 완본으로 묶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지역 사람들과 연계해서 작업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공동체 ‘피쉬’를 만들어 활동 중인데, 5월에 피쉬의 공간도 오픈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제로웨이스트숍 ‘소중한모든것’과 함께 업사이클링 브랜드 ‘타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모모하시니에서 이뤄지는 예술은 제한 없는 ‘만물작업’이지만, 분명 보통의 동네, 보통의 물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극히 보통의 날들과 지속적인 삶의 기록이 결국에는 위대한 것으로 남는다’는 김현주 대표의 믿음처럼 말이다.



- 1, 2 — 동네 기록 <미찰>. 동네 아지트 만들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동네 사람들과 지역을 다양하게 기록하며 모임을 하는 중이다.
- 3 — 작업과 돌봄을 병행하며 성장하는 커뮤니티 공동체 ‘피쉬’. 그림은 실제 피쉬 멤버이다.
- 4 — 업사이클링 브랜드 ‘타닥’의 제품. 카드지갑, 연필케이스 등 비닐을 업사이클링해 제품을 만들었다.
- 5 — 연수문화재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로 참여해 송도어촌계 갯벌 이야기를 만화로 기록했다.

모모하시니 프로젝트



환경을 위해 행복한 습관을 들여요 해피해빗(happyhabit)



살면서 마주하는 어떠한 문제는 대부분 '적정선'을 넘어섰을 때 비롯된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환경오염 문제' 역시 그렇다. 너무 과하게 쓰고, 과하게 먹고, 과하게 사고... 지구에 대한 적정선을 넘어선 지금, 다시 적정선을 지켜야 할 때다.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ICT 기반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이 있어 소개한다. 환경을 위해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해피해빗 이용 안내서.

글 최선주 / 자료 행복커넥트, 해피해빗

지구를 위한 특명! 해피해빗 프로젝트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사람들은 섣뜻 이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

행복커넥트와 SK텔레콤이 함께 만든 환경보호서비스 앱, 해피해빗은 제아무리 어려운 일도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일회용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페에 다회용컵으로 대체하는 걸 제안하며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고 있다.

2021년 7월, 스타벅스 제주 매장 4곳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면서 카페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기업·기관 사내 카페, 대학교 등에 도입을 확대하며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중이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개인위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일회용품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져 어려움을 겪었다. 업주들과 사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득이 필요했던 것. 세척장과 다회용컵 오염도 공개 및 프로그램의 위생 및 안전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 해피해빗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회용컵이 찻찻하다?

아닙니다. 해피해빗 다회용컵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PP)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약 70회 사용 후 100%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7단계 안심 세척을 제공하는 다회용컵 전문 세척장에서 세척을 거칩니다.

#환경호르몬 불검출 #100% 재활용 가능 #컵 개별 인식 코드 #지역별 전문 세척장 #7단계의 꼼꼼한 안심 세척



반납이 어렵다?

아닙니다. 해피해빗 다회용컵은 컵의 정합성을 판별하는 비전(Vision) AI 기술이 적용된 ICT 무인 반납기에 쉽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불, 반납기 위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전용 앱 해피해빗을 사용하세요.

#대형 반납기 #소형 반납기 #컵 반납 시 보증금 즉시 환불 #현금 환불 #카페 및 반납기 위치 찾기



해피해빗 믿고 사용하세요!

전국 해피해빗 만남 지도
<https://www.happyhabit.co.kr/>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위 주소로 접속하면 해피해빗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지역과 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뜨는 이유



GEMSTONE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폐조선소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에 위치한 젬스톤 거제점은 선박 제조기업이었던 세웅해양플랜트가 있던 장소다. 그런데 세월에 따라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었고, 이창렬 대표가 기존 350평 공장 부지에 600평 규모의 신축건물을 결합해 젬스톤 거제점을 오픈했다. 젬스톤은 보석의 '원석'이라는 뜻으로, 공간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겠다는 이창렬 대표의 의지를 담았다.

폐조선소에서 고소한 빵과 달콤한 커피 향으로 가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젬스톤 거제점. 2017년 폐수영장에 지은 영도점을 시작으로 송정점, 사하점, 창원점, 대전점에 이어 여섯 번째 프로젝트다. 2022년 12월 10일에 오픈했는데,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단다. '폐조선소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뀐 놀라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제 대표 핫플레이스가 된 것이다.

골리앗 크레인이 인상적인 핫플레이스

공간은 1층부터 3층까지 나뉘어져 있고, 푸른 바다와 크레인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루프톱도 있다. 공간에 따라 인테리어나 콘셉트가 조금씩 다른데, 케어키즈존인 1, 2층은 가족 단위의 손님이 주로 이용하고, 노키즈존인 3층과 루프톱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사색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게다가 웅장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공간이 넓어서 각종 공연이나 전시, 행사도 진행된다.

폐조선소에 지어진 복합문화공간! 바다 곁에서 힐링할 수 있는 썬더! 이토록 특별한 젬스톤 거제점이라니! 드디어 거제에서 원석을 찾았다. 🌐

젬스톤 거제점

-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신계해안길 90
- 🕒 매일 10:00~22:00
- ☎ 0507-1339-3973
- 🌐 https://linktr.ee/gemstone_official

##요즘 ##거제

신거제대교를 지나 좁은 해안길을 따라 좀 더 들어가면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2대가 시선을 압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푸른빛의 바다와 수많은 섬들로 인해 거제 대표 뷰맛집으로도 불리는 이곳! 바로 폐조선소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젬스톤 거제점'이다.
글 박영화 / 사진 정우철

📍 젬스톤 거제점 📍 여기로



바다에서 날아온 아름다운 이야기

지난 1월 3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에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해 한 생명을 살린 이야기, 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리 편집실

라디오 사연 속으로

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방송국처럼 저희 공단에도 여러 직군이 있는데요. 그중 선박검사원 선배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안전 운행을 위해 자동차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건축물이 설계대로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감리를 받듯 선박도 새롭게 건조되고, 운행되는 과정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원은 어선 등의 선박을 검사하는 업무를 해요.

지난해 11월이었어요. 인적 드문 어촌마을 남해 가인포에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김정환 선배님이 평소처럼 선박 검사 업무를 보고 있었죠. 선배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따라 유독 바닷바람이 차가웠다고 하더라고요.

어선 검사를 하면, 선주나 선주의 대리인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날은 선주 대리인으로 선주님의 부인께서 나와 계셨대요. 그런데, 어선 검사를 받던 중 선주님 부인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심정지가 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정환 선배님은 여름에 받았던 응급처치 교육을 기억해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낚시 중이던 낚시객에게 외쳤죠. "119 좀 불러주세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에 선주님 부인은 의식을 회복했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환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라며 김정환 선배님의 빠른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선주님 부인도 그렇고요.

선배님께서 구하신 선주님 부인은 병원에서 순조롭게 회복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도 바닷가 현장에서 선주님들과 어업인 분들을 만나며 선박 검사에 여념이 없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원 선배님들을 응원해 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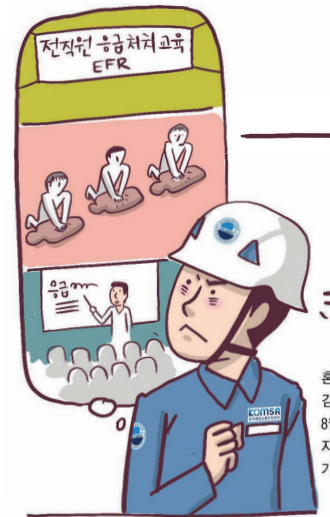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에서 김리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즐기는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응급훈련교육, 귀중한 목숨을 구해



혼란스러운 와중에 김정환 검사원은 8월에 받았던 지난 응급처치 교육을 기억해냈습니다.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기도를 확보하고 CPR을 실시한 김정환 검사원은



멀리서 낚시 중이던 낚시객을 큰 소리로 불러 119를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에 선주가 의식을 회복했고 구급 대원에게 인계했습니다.



검사원은 보호자와 통화 후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는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김정환 검사원의 빠른 초동조치에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최고 굿!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구조는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심폐소생술로 응급상황에 처해있는 분(선주 대리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김정환 KOMSA 사천지사 검사원(10년 차)



"검사원님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주 대리인

알려드립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구성된 '즐기는 라디오'는 '바다에서 일어난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바다에서 잊지 못할 추억, 감동받은 사연, 즐거웠던 일 등 바다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웹진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연 남기기 가기



바다에 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다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바다를 찾는 여행객들도
저마다 바다를 찾는 이유는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바다는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바다를 누리는 것.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원은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박검사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오늘 하루도 바삐 움직입니다.

선박의 모든 순간이



사천지사 선박검사원 김승현 부장

안전하도록

제대로 알지 못했다. 선박검사원의 업무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선박검사원은 선박이 만들어지기 전 도면승인을 시작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검사를 진행하고,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선박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선박의 배출물처리시스템과 환경관리시스템 등을 검사하기도 한다. 선박이 탄생(건조)부터 생을 다할 때(폐선)까지 험난한 바다 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박검사원. 선박 안전!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도달하기까지 무던히도 애써왔을 김승현 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글 박영화 / 사진 정우철

사천지사 선박검사원
김승현 부장



입사일

2010년 12월 10일(12년 3개월)

신조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Q. 선박검사원의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선박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진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여객선, 화물선, 특수선 등의 일반선부터 어선, 부유식 해상구조물, 수상레저기구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을 책임집니다.

Q. 선박검사원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출근하면 선박검사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부분을 검사해야 할지에 대해 체크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검사과정과 준비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그런 다음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선박이 있는 곳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루 90km 정도를 이동하는데, 3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검사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박검사를 한 뒤 사무실에 복귀하면 관련 사항을 공유하는 업무부터 유관기관와의 업무조율, 검사일정 협의, 지시공문 확인,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일과를 마칩니다. 여러모로 애쓰고 계신 전국 선박검사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Q. 사천지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박검사가 진행되나요?

사천지사는 삼천포항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삼천포항은 해안선을 따라 47개의 크고 작은 어항이 있고, 총 2,000척이 넘는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큰 항구인데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사천지사에서도 10명의 검사원이 1년 동안 일반선 160여 척, 어선 4,200여 척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연평균 약 550건 정도의 선박검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검사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우 전쟁 장기화로 유가 및 물가 등의 제반 경비가 상승되고,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수산·해운업계 채산성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면서 수리 정비 업체와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경영 여건도 악화되었어요. 사천지사 관내 조선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건조검사 물량과 기자재 업체의 예비검사 물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Q. 여러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사천지사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116건에 달했던 해양사고가 2022년에는 48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흥주 지사장님을 필두로 선박검사팀과 행정팀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선박검사원은 어떤 고충이 있나요?

해양사고예방이라는 사명으로 법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지만, 간혹 선주님들과의 입장차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경력이 부족했을 때는 선주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말씀드려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설명을 드리니깐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더라고요. 선박검사의 목적이 선박의 안전 확보를 통해 선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행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선사항을 말씀드려도 오히려 고맙다고 하십니다.

Q. 선박검사원 하면 '바다 수호자', '바다 안전 지킴이' 같은 멋진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작은

어촌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제 인기는 아이돌급입니다. 하하. 마을 어르신들이 선박 관련 궁금증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물으시고, 아버지 연락을 받고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박검사원인 아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선박검사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선박검사원이 된 건 소형어선 선주이신 아버지의 영향이 크셨겠네요.

맞아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바다와 배에 관심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 선택한 진로는 상선항해사였어요. 초임 3등항해사로 첫 승선을 했던 곳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여수입니다. 30만 톤급 유조선이었죠. 여수항 묘박지에 묘박 중인 선박들을 보면 아직도 20여 년 전 그때의 설레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항해사 생활을 하던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하면서 선박검사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후배들에게 또는 KOMSA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사 5년 차가 되던 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서 육아휴직을 냈었죠. 1년이라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지만, 막상 복귀가 임박해지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때 선배가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셨고, 지사 동료 선후배님의 배려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는 건 그때 그 감사한 마음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 또한 동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주변에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다면 동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에 공감합니다. 때론 말도 안 되는 긍정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부정보다 힘이 더 세다고 합니다. 동료의 부족함보다는 장점을 보고,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



베테랑을

베테랑을

< **MTIS**와 함께라면 예방 할 수 있지! >

종합 해양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 있어 소개한다.
이름 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해수호가 알려주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세계로!
글 편집실 /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Q. 해양교통안전정보 시스템(MTIS)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은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의 약자입니다. mtis.komsa.or.kr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MTIS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해양사고, 선박검사,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 현황과 특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기상과 연계해 격자별 사고발생 위험도를 예측합니다. 또한 선박제원, 검사, 사고, 운항 등의 정보를 선박·선주·지사별로 제공하여 사용자 맞춤형 자기주도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선박 위치 기반의 교통밀집도와 여객선의 실시간 운항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Q. MTIS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나요?
도로·철도·항공교통분야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고 데이터 기반 교통안전 현황 정보를 공유해 교통안전 문화 형성 및 산·학·연·관의 교통안전 관련 정책·기술 개발 및 연구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MTIS를 통해 수년간 축적한 해양교통안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Q.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선사·해양종사자·유관기관 등 해양교통안전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검사·운항정보를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해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해양교통안전 종합정보제공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MTI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해양 사고 종합정보입니다. 해양 사고 통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맞춤형 안전 관리입니다. 해역별 사고 발생 위험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선박, 검사, 사고, 운항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별로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 안전관리를 도와줘요. 세 번째, 국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여객선 운항정보와 격자별 교통밀집도를 해도에서 확인 가능해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한눈에 보는 스마트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단계별 구축 로드맵

2021

1차년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구축
HW, SW 인프라를 도입하고 해양교통안전 관련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2022

2차년도
해양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해양교통안전 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확대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3차년도
공동 활용체계 확립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확대 및 통합 분석을 통해 공공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공유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해수호와 함께하는 PATIS 똑똑하게 사용하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를 이용할 수 있다.
PATIS와 함께 섬 여행을 편리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

Q.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는 PAssenger ship Transportation Information Service의 약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운항 정보와 해양수산부의 선박 위치정보(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객선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명, 제원, 속력, 위치, 침로 등 선박의 운항정보 등을 선박과 선박, 선박과 육상에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장치

Q. 어떤 이유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예전에는 여객선 통제 여부 또는 지연시간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객선터미널 또는 선사 등에 직접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객선일수록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리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국민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Q. PATIS에서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연안여객선 155척에 대한 운항 상황(일정, 통제 여부 등), 여객선별 정보(선명, 기항지, 소요시간, 도착예정시간 등), 실시간 여객선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기상정보를 연계해 기항지별 날씨와 풍속, 시정 등 기상예보를 제공하고 선사별 매표 링크와 기항지별 관광정보 누리집 링크도 연계해 편의를 높였어요. 운항정보는 파일 형태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먼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https://mtis.komsa.or.kr>)에 접속합니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에서 '일일 운항정보' 조회 후 출발·도착 시각, 실시간 위치, 기상정보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오는 8월부터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Q. PATIS의 장점을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객선의 출발과 도착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 있는 여객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도착지의 여행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자체 기술력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눈에 보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



안전 향해의 첫걸음

About:선박검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를 실시한다.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알아본다.
글 편집실 /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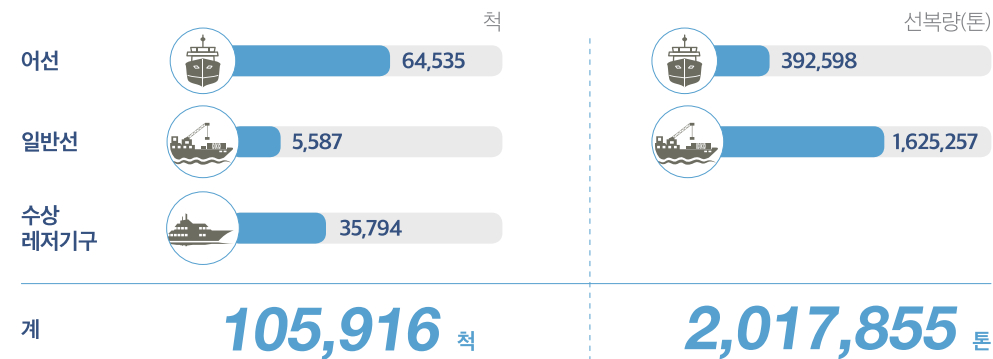
검사대상 선박 현황



선박검사 종류

선박검사·선박용 물건의 검사·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총 톤 수 측정, 설계도면 승인·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상 선박 현황 2022. 12. 31 기준



KOMSA 내
2023. 3. 31 기준

243 명
people

선박검사원 수



검사대상 선박 종류 2022. 12. 31 기준



검사대상



단위: 척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어선	65,445	65,318	64,964	64,655	64,535
일반선*	5,727	5,721	5,743	5,645	5,587
동력수상 레저기구	27,515	28,876	31,503	33,927	35,794
계	98,687	99,915	102,210	104,227	105,916

*일반선 「선박안전법령」 적용을 받는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부선, 기타선 등

전국 지사 및 출장소

18 지사 **2** 출장소 ⇨ 검사업무 수행

통영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with 통영지사&통영운항센터



본사
교통정책실
최진우 주임
(연구직)

본사
인재개발실
유재식 주임
(행정직)

같은 'KOMSA 울타리' 안에 있지만 직군별로 하는 업무가 달랐기에 궁금증이 생겼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 궁금증으로만 끝내기엔 직접 가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사 유재식, 최진우 주임은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통영으로 갔다.
두 사람이 전하는 통영지사 그리고 통영운항센터 이야기.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PM 13:00 이곳이 통영이로구나

미세먼지만 아니었다면 더욱 완벽했을 어느 날.
본사 인재개발실 유재식 주임과 교통정책실 최진우 주임이 먼 길을 달려 통영에 도착했다.
본사와는 달리 현장업무 위주로 돌아가는 통영지사와 통영운항센터의 분위기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통영은 업무로는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바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선배님들의 하루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유재식, 최진우 주임이 1박 2일 출장 온 통영은 관광지로 유명하고, 항로거리가 짧은 섬들이 많은 게 특징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통영지사, 통영운항센터는 더 바쁘게, 더 멀리 업무 현장을 누벼야 한다.
“통영지사 관할 구역이 통영만이 아니라 고하도라고요. 정확히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하일면, 하이면 제외)인데요. KOMSA에서 관리하는 선박 105,916척 중 8.6%를 통영에서 수행한다고 하니, 업무 범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배님들을 만나서 들어볼게요!”





PM 13:30
출항 전 안전점검 필수!

반갑게 본사 식구들을 맞이해주는 통영운항센터 직원들. 통영운항센터의 총 인원은 16명이지만 6개의 파견지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한곳에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저희는 통영운항센터를 중심으로 삼덕, 가오치, 욱지도, 저구항, 삼천포, 사랑도 6곳의 파견지를 관리하며 순환근무 중입니다. 다른 지사나 센터에 비해 관리하는 선종이 다양한 편이죠.”

추원욱 대리는 센터 사무실 소개를 해준 뒤, 곧 출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본사 직원들과 함께 여객선으로 향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선박월례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저희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매 순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안전 장비부터, 운전 상태, 준비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한 후 기관실로 갔다.

“기관실이 매우 시끄럽고 덥더라고요. 저는 잠깐 갔다 와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센터 분들은 이걸 항상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관실을 함께 둘러본 유재식, 최진우 주임은 센터 직원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PM 14:00
통영운항센터 사람들

“통영에서 일하다 보면 아름다운 섬들을 자주 관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섬들은 저희에게 승선지이고 저희는 승선지를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관광과는 거리가 멀죠. 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바쁘답니다. 하하.”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이들의 숙명. 차량가판구역에 캠핑카가 많이 들어오는데, 운전자들이 뒤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액셀을 밟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슬리퍼 신은 아이들이 기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등의 사고는 특히 날씨가 좋은 계절이나 휴가철에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날이 풀린 요즘에는 한시도 눈을 땄 수 없다고.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사관계자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선원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적용하여 여객선이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M 15:00
정이 넘치는 통영지사

통영운항센터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통영지사의 문을 두드린 유재식, 최진우 주임. 통영지사 강봉문 지사장과 16명의 지사 직원들 역시 환한 웃음으로 이들을 반겼다. 관리하는 여객선 수가 많아 지사 직원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통영지사 직원들은 우스갯소리로 기피하는 지사가 있다면 1위는 통영지사가 아닐까라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노고만큼의 보람도 따라오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아무래도 검사원의 입장에서서는 간간하게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싫은 소리만 해서 선주님들 입장에서 반갑지 않겠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쩌다 검사 현장에서 마주치면 고생이 많다고, 커피라도 마시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보람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선종을 관리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업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힘든 업무를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유대감도 끈끈하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재식, 최진우 주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다”라며 속마음을 전했다.



☀️ 아름다운 통영에서
통영지사, 통영운항센터, 본사
파이팅!

“본사와 지사라는 지역적 차이를 넘어서
인상 깊은 하루를 만들어 주신 통영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몰랐던 현장 업무도 보고, 여러모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유원마린테크

독보적인
소형선박조선소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대형 크레인과 굴삭기가 곳곳에 있고, 크고 작은 선박들이 해안로를 따라 정박해 있다. 그 주변으로 유수의 기업을 비롯해 선박 관련 업체가 즐비하다. 차세대 소형 선박 조선소인 유원마린테크는 이곳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중이다. 글 박영화 / 사진 정우철

기술우위 — 디자인 차별화

2020년 창업한 유원마린테크는 20톤 미만 선박을 전문으로 만드는 조선소로, 거제에서 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유일한 회사다. 삼성중공업에서 8년, DH대해 선박설계에서 설계팀장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유원마린테크를 창업한 뒤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낸 유명호 대표. 최근 자재비 인상 등으로 많은 선박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원마린테크에는 선박 건조를 맡기려는 선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창업 초기에는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 선박 건조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FRP 선박이 주를 이룹니다. 미래에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게 되겠지만, 당장 선주님들이 원하는 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선체는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한 FRP로, 상부구조물은 선주님들이 원하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한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죠”

하나의 몰드로만 제작하는 회사들과 달리, 유원마린테크는 선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제작하다 보니 선박의 모습이 다 다르다. 이는 유명호 대표가 설계도면을 직접 그릴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다시 말해 유원마린테크는 기술 우위, 디자인 차별화, 고객 만족, 성공한 기업이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저희는 선주님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맞춰드릴 수 있는 조선소입니다. 제가 직접 선주님들과 만나 설계를 진행하면서 원하는 방향대로 수백 번 도면을 수정합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만족감은 커지는 거죠. 그게 저희 회사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 파트너십

경쟁력을 지닌 미래 지향적인 기업이 되기까지 유원마린테크에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최고의 파트너다. 유명호 대표는 “KOMSA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라고 운을 떼었다.

“저희 회사가 선질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승인사항이 많고, 질의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통영지사 박지수 검사원님이 상세하게 알아봐주시고, 본사 도면 승인실에서도 문의하면 답변을 잘해주세요. 통영지사 강봉문 지사장님도 직접 회사에 방문해 세심한 부분까지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명호 대표는 표준어선형제도에 대한 칭찬과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표준어선형제도는 지난 2020년 정부와 KOMSA가 함께 어선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다. 어선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과 같은 복지공간에 대해서는 톤수 측정 시 제외 장소로 인정하고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복지공간 신설로 어선의 규모가 커지는 점을 감안, 복원성 안전 기준을 확대·적용하기로 한 것. 안전성과 효율성, 조업 편리성 등을 갖춘 어선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한 제도인 것이다.

“복지공간을 강화하는 표준어선형제도 덕분에 불법 증개축 같은 부담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KOMSA에서 이런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선진기술을 전파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 업계의 긴 불황 속에서도 유원마린테크처럼 자신들만의 경쟁력으로 곳곳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건 ‘안전하고 편리한, 선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박 건조’를 목표로 씬 없이 나아가는 유원마린테크가 있어서일 테다.



올봄에는 ‘안전’과 ‘대어’를 ~~~~~ 같이 낚아볼까?

바다낚시 안전하게 즐기기

낚시꾼들에게 봄은 제대로 물오른 계절이다. 날씨도 제법 평온하고, 별이 좋아 바다낚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좋아하는 취미일수록 오래, 자주 하려면 안전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올봄에도 바닷가 낚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고하는 바다낚시 안전수칙. 글 최선주 / 자료 해양수산부 <안전한 바다여행>



Chapter 1

준비물을 꼼꼼하게 준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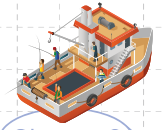
낚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물건들은 생각보다 많다. ‘낚시대와 구멍조끼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 구멍조끼, 낚시용 안전화, 스마트폰은 필수품. 특히 선상은 쉽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용 안전화를 반드시 신어야 한다. 일일이 구매하는 게 어렵다면 운동화나 트레킹화를 신는 게 좋다. 단,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핀 벨트와 스파이크가 결합된 전용 신발을 신을 것을 권한다. 안전화와 구멍조끼만 제대로 갖춰도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Chapter 2

기상 상황을 미리 체크할 것!

바다는 즉각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날씨에 따라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일하려 나서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고려해야 할 날씨 중에는 바람, 비, 눈,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낚시꾼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람이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높아져 배의 롤링과 피칭이 심해 낚시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선상에서 있기조차 힘들고, 포인트에 배를 대기도 어렵다.



Chapter 3

승선 인원을 지킬 것!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선에 탑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간혹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원을 초과한 배는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선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선장뿐만 아니라 낚시꾼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또한, 승선 지시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서둘러 승선하다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 선장과 이용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승선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Chapter 4

행선지와 낚시 일정을 공유할 것!!

낚시 안전사고는 신속한 대처와 구조가 중요하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꼭 알릴 것을 권한다. 조난을 당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포기하지 말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물때를 알려주는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해양레저 안전 관련 다양한 앱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반드시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해 두자. 그밖에도 선상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행위다. 음주 낚시는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 🇰🇷

낚시꾼들이 알아두면 좋을 ‘바다 안전 관련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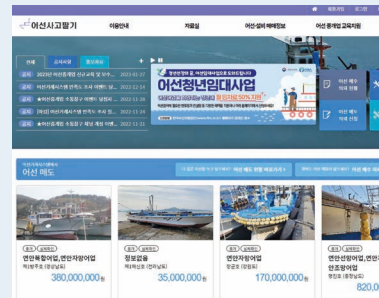
남시해(海)
낚시어선 승선신고 관리 편의성 제공 및 해양안전사고 예방, 방재기관의 대국민 구난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헤로드
소형어선이나 레저선박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앱. 전자해도, 긴급 구조 요청, 바닷길 안내, 기상정보를 제공해 준다.

NEWS

Spring



1

2022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비 22% 증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연안 여객선 승수 실적이 1,399만 1천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253만 명(22%) 증가했다고 지난 2월 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46만 4천 명 보다 22%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섬 지역 여행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지난해 여객선 이용객 중 일반인 여행객은 1,091만 명으로 2021년 850만 명 보다 28.4% 증가했다. 동 시기 섬주민은 308만 명으로 2021년 297만 명보다 3.7% 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

교통약자 여객선 이용 “편리해졌어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연안여객선 75척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지난 2월 22일 밝혔다. 이중 국가 보조항로 여객선은 26척, 일반항로 여객선은 49척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목포지역 여객선이 16척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와 전남 완도가 각각 15척이다. 이로써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휠체어 출입구 통로 확보, 교통약자용 좌석과 각종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와 어린이 등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섬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바닷길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까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3

바다에 떠있는 어선, 어선은 어떻게 사고, 팔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거래 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필수 정보 제공, 이용 환경 개선 등으로 건전한 어선거래 생태계 조성 및 어선중개업 일자리의 안전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과거에 어선을 사고·팔기 위한 거래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일명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곤 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어선거래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을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어선 매매자와 중개업자 간 어선거래 시 확인해야 할 필수정보인 매물정보, 등록·허가정보, 검사정보, 어선중개업체정보 뿐만 아니라 거래종료 이후 매물의 시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KOMSA NET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본사 안내

044) 330-		
이사장	T.2200~1	F.2352
기획조정실	T.2210	F.2353
성과혁신실	T.2410	F.2466
경영본부장	T.2203	F.2352
인재개발실	T.2220	F.2354
운영지원실	T.2230	F.2357
정보보안실	T.2500	F.2355
교통연구본부장	T.2205	F.2352
교통정책실	T.2300	F.2309
해양안전실	T.2340	F.2339
해양환경실	T.2250	F.2365
안전연구실	T.2450	F.2461
검사본부장	T.2204	F.2352
검사관리실	T.2260	F.2358
검사기준실	T.2270	F.2359
운항본부장	T.2206	F.2352
운항정책실	T.2381	F.2379
운항상황센터	T.2670	F.2389
감사실	T.2320	F.2364
노동조합	T.2360	F.2367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0~9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지사 안내

인천지사(032)
T. 764-6181~3 F. 764-6184

인천운항센터(032)
T. 889-3945-54 F. 889-4061

당진지사(041)
T. 358-8697~8 F. 358-8641

서울출장소(02)
T. 2671-7838~9 F. 2671-7841

속초

속초출장소(033)
T. 635-5394 F. 631-6002

동해

동해지사(033)
T. 535-8091, 8093 F. 535-8094

동해운항센터(033)
T. 534-8437~9 F. 534-8440

태안지사(041)
T. 674-5447~8 F. 674-5449

세종본사(044)
T. 330-2380 F. 330-2357

중부지사(044)
T. 330-2285 F. 330-2363

보령지사(041)
T. 933-3981, 5863 F. 932-1855

보령운항센터(041)
T. 931-9083~6 F. 931-9087

포항지사(054)
T. 246-5394~5 F. 246-5396

포항운항센터(054)
T. 256-9784~7 F. 256-9788

군산지사(063)
T. 452-8187~8 F. 452-8189

군산운항센터(063)
T. 471-7486~9 F. 471-7490

포항

울산

울산지사(052)
T. 261-6124~34 F. 265-5394

부산

부산지사(051)
T. 638-6221~3 F. 638-6226

부산운항센터(051)
T. 469-8425~6 F. 469-8427

목포

목포지사(061)
T. 245-6142~4 F. 245-6145

목포운항센터(061)
T. 247-9457~66 F. 247-9594

여수

여수지사(061)
T. 654-5262~3 F. 654-5265

여수운항센터(061)
T. 662-9713~8 F. 662-9719

사천

사천지사(055)
T. 833-5394, 4998 F. 832-1484

창원

창원지사(055)
T. 222/246-6774 F. 246-7838

통영

통영지사(055)
T. 646-6011 F. 644-8661

통영운항센터(055)
T. 649-8432~6 F. 649-8438

제주

제주지사(064)
T. 721-7401~2 F. 702-7404

제주운항센터(064)
T. 759-9780~3 F. 759-9786

고흥

고흥지사(061)
T. 843-4-5394 F. 844-1369

고흥운항센터(061)
T. 844-9012~3 F. 844-9014

본사로 오시는 길



1 웹진에 숨은 해수호를 찾아주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캐릭터 '꽃을 낚은 해수호'가 웹진에 숨어있습니다.
웹진에 접속해 해수호를 찾아주세요!

참여 방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웹진을 접속한다.



<https://komsa-webzine.co.kr>

② 웹진 곳곳에 숨어있는 해수호를 찾아 누른다.
③ 입력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끝!

참여 기간 2023년 4월 28일(금)~5월 19일(금)

당첨 인원 10명(랜덤 추첨)

당첨 선물 GS편의점 상품권(1만 원)

선물 발송 이벤트 마감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
(※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습니다)



2 <해안선> 보고 독자 의견 남겨주세요!

매호 발행되는 <해안선>을 보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해안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해안선> 웹진 구독海

더 새롭고 더 알차게 돌아온 웹진 구독하기



#휴대전화에 최적화

모바일에 최적화 된 스타일로 새롭게 바뀐 웹진 <해안선>
휴대전화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웹진 이벤트 즐기기

웹진 페이지 곳곳에 숨어있는
꽃을 낚은 해수호를 찾아주세요!

<해안선> 웹진을 구독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 주소를 입력한다.
<https://komsa-webzine.co.kr>



둘 아래 QR코드를
스캔한 후 접속한다.



셋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웹진'
을 검색한다.



넷 웹진에서 웹뉴스레터를
'구독신청' 한다.
*이메일로 가장 빠르게
웹진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